

# 전국 양계인 단합대회를 살펴본다



■일시 1988년 2월15일 오후2시  
 ■장소 본회 회의실  
 ■참석자: 김오환(유통정보 기자)  
 민병호(축산신문 기자)  
 유진상(월간현성 편집부장)  
 이종태(식량경제신문 기자)  
 전정희(농수축산신문 기자)  
 ■사회: 남두희(본지 편집부장)  
 ■장리: 조종수(본지 기자)

**사회:** 미국으로부터 양계산물을 포함한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축종별 생산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민들의 생존에 대한 호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양계업계에서는 양계관련 모든 단체로 구성된 전국양계인단합대회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2월5일 63빌딩에서 약1천5백여명의 양계인들이 모여 전국양계인 단합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아쉬움도 있었지만 일단 이러한 행사를 처음으로 치렀다는데에 큰 의의를 가집니다.

이날 대회를 취재했던 기자여러분들이 취재하면서 느낀점을 얘기해 주시고 또한 대회의 의의와 성과를 분석하고 수입개방 압력의 대응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날 행사중 중앙대학교 김성훈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수입개방압력과 양계인 대응책」이라는 강연요지를 살펴보기로 하지요.

**민병호:** 국제경쟁력이 없는 농업이나 축산업에 있어서 현재 미국이라든지 여러 교역 대상국들이 수입개방압력을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과 현재국가정책자체가 농산

품보다는 공산품위주로 그동안 영세한 축산업자나 일반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늘 피해만 감수해왔으며, 또한 수입개방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무작정 비교 우위를 내세워 수입해야 된다는 발상은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국가경제전망까지 흐트러 놓는 처사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모든 1차산업부문이 그러했듯이 생산자들이 생산에만 주력해온 것이 사실인 바 앞으로 상업영농시대를 맞아 생산하는 축산물의 상품화 차원에서 생산자들 스스

“  
**대회장 분위기와  
 대회의 의의 및 성과를  
 분석해 본다.**  
 ”

로가 유통에까지도 직접 참여하는 열의와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유통현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생산기반이 조성돼 있지 않으면 앞으로는 점점 더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우려하면서 양축가들 스스로의 각성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종태:** 김박사님 말씀은 결론적으로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은 아직 시기상조로 남득할만한 대책없는 수입개방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견해입니다.

**김오환:** 미국축이 우리나라에 수입개방을 강요하는 것은 공산품을 수출하는 대신에 농축산물을 수입해야 된다는 논리로 하필이면 농민들만이 그 피해의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이것은 농민들이 여태까지 하나의 피해의식을 부지불식간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온 데에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 농민들의 의식에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렇듯 피해의식을 당해오면서 농업은 후퇴가 되어야 했고 농촌은 점점 낙후되면서 농민들은 스스로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며 설상가상으로 최근 쇠고기 수입개방압력에 이어 달걀·닭고기 등의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요구한다는



△양계인 단합대회 취재기자 간담회

것은 국내 양축농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생산자를 중심으로한 생산자단체들이 대책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공산품을 판매할 때 생기는 수익금을 농민들한테 보조하여 주든가 아니면 세제상 제도적인 지원혜택이 필요한데도 이러한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더욱이 없었다는 점에서 농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70년대 비교우위론에 입각해 공업화를 위해 농민은 희생돼야 했으며 농촌은 후퇴하였고, 80년대에 와서는 농민들의 생존권마저도 포기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라도 형평원칙에 의해 농업도 타산업과 같은 차원에서 배려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인 희생은 이제 끝나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날 대회의 의의와 대회장 분위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꼈던 점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유진상:** 이번 대회의 지적사항으로는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점과 대회날짜가 빈번하게 변경됐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회준비위원들의 조직력이 약해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회일정이 임박해서도 확정된 대회날짜가 정해지지 못하고 서너번의 혼란이 야기되어 대회전 많은 염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당일 많은 양계인들이 참석했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전국에서 이렇듯 많이 모였다는 사실은 그동안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양계인들끼리의 애환을 나누며,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에 양계인들만이 품고 있었던 그 무엇인가를 밖으로 확산시켜 보고자하는 마음의 발로가 작용되었다고 봅니다.

대회준비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준비위원들을 다양하게 여러 지역에서 위촉해 전국 각지역별로 분담하여 준비를 했더라면 더욱 짜임새 있고 훌륭한 대회를 치룰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한편 이번 대회를 막상 준비위원회가 주관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용상으로 볼때 양계협회에서 많은 협조가 있었다는 걸로 아는바 조직적으로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고 명실공히 전국의 양계인단체인 양계협회가 당일 행사를 주관했다라면 행사내용면에서 더큰 성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반문도 해 봅니다.

이번 대회에서의 특이할만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는 사항으로 대회당일 기대이상으로 많은 양계인들이 모임으로 우리 양계인들도 이제는 뭔가 단합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과 동업자 간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목소리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종태:** 양계인들이 처음으로 모였다는데 의의는 크지만 여기에 앞서서 뒤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미국같은 경우는 현재 농민 인구가 전체인구의 2.2%밖에 안되지만 유통에 종사하거나 파생되는 관련업계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의 약 43%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농축산물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들 모두가 들고 일어나서 단합하여 어떤 커다란 압력단체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며 생산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와 비교해 볼때 상당히 초보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양계인의 삶에 대한 노력은 대단해 참여도는 높았지만 관련업계 협조가 아쉬웠습니다. 대회이후 단합된 힘을 확산시키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전정희:** 낙농이라든가 양돈쪽이 이미 한번씩 대회를 거쳐갔는데 국내에서는 가장 안정된 산업기반을 갖고있는 양계산업쪽에서 그동안 쇠고기 수입이라는 자체를 자기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생각을 한데서 문제점이 있지않았나 봅니다.

축산인들끼리 서로의 연대의식이 낮기 때문에 어떤 위기의식을 공감



김오환 기자

“ 기대 이상으로 양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뭔가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런 대회도 늦어졌다고 보며, 생산자 단체인 협회라든가 또 경제적인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그동안 양축가들에게 제도했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해 협회나 조합이 약간은 무관심하지 않았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전 대회홍보라든가 준비가 소홀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계인들이 많이 모인것으로 보아 생업을 망치해둔 상태로 이 대회에 참석한 것은 자신들이 살려고 하는 노력이 정말 절실히 나타나는 대회였다는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대회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았으나 대회를 마치고 난후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일부 회의적인 의견이 있어 대회 이후의 이어지는 맥이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의 대책도 양축가들에게 상세하게 알려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적극적인 계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오환:** 이날 양계인대회가 미국의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반대하기 위해 양계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수입개방 저지대회를 실시했는데 이 계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복잡한 양계산물 유통에까지 생산자들이 실제 참여해서 유통개선에 직접 관여해 효율적인 유통체계가 확립된다면 외국산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피해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병호:** 당일대회 자체도 볼때는 수입반대 열기가 상당히 고조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단합대회를 과시하는 충분한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가지 처음 모인 대회이면서도 실내에서 집회를 가졌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질서정연하게 대회가 이뤄졌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후평입니다. 물론 이해가 다른 어떤 조직들을 하나로 뭉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대회를 대한양계협회를 중심으로 전 양계인

단체를 하나로 모아 전국의 양계인들도 일년에 한번씩 모여서 연중행사를 치루면서 자리를 같이하는 것도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 대회장을 취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농민들 개개인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나 그밖에 농민들의 반응에 대해 느꼈던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상:**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도 투기심리가 모든 산업에 걸쳐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축산을 경영함에 있어서도 낙농, 양돈, 양계이들간에 투기심리가 손을 뻗쳐 어디서 돈벌었다 하면 자신도 이것을 하게되면 돈을 벌 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일시에 몰리는 등 이러한 것은 우리 전문지 쪽에서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지도와 계몽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대·소군업자가 끌고루 모였으며 자비를 들여 회비를 내면서 높은 참여의식을 보였고 수입반대의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인원에 비해 질서의식도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정희:** 대회 당일 황성에서 왔다는 양계인을 만나보았는데 자신은 대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다 다만 양계인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붐이 일어나서 구체적으로 양계인들의 권익보장기구로 발전되었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기에 저는 양계협회를 비롯해서, 양

계조합, 계우회연합회 및 육계농가안정협의회 등 기존 기구 및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자신은 참석범위도 잘 모르겠고 또 누가 참석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모였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것이라고 판단할 때 과연 양계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 모임에 참석하



민병호 기자

“ 이번 대회의 결과를 하루 속히 우리 양계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

거나 그 단체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양계인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과 생산자단체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회자체는 잘 진행되었다고 보며 결론적으로 대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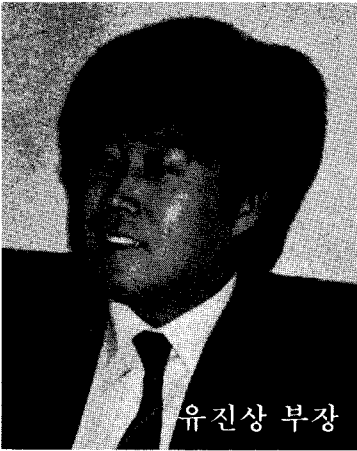
후 앞으로의 추이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계인들 모두가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이날 대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축산물 수입 결사반대 뿐만아니라 축산원자재에 대한 면세요구와 양계산물 유통구조개선에 정부에서의 투자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뜻이 포함됩니다. 참가한 양계인들의 주장과 앞으로 양계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병호:** 대정부 건의문에 나와 있듯이 달걀·닭고기를 위시한 축산물의 수입결사반대는 사실상 우리 양계인들이 하지말라 또는 해라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물론 해서는 안되겠고 또 안되게 해야할 일이 우리의 어떤 의사표시이지만 실질적으로 농림수산부에서 수입개방을 막을 힘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번 양계인 대회라든가 낙농인 대회를 통해 농림수산부가 이를 토대로 양축가편에 서서 대변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부의 입장을 유리하게 부각시키는데 우리 생산자들은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최근 금리혜택 면에서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금리는 7%의 혜택을 주는 반면 양축농가들에 대한 영농융자 금리혜택은 14.5%로 되어 있는 바 형평의 논리에 크게 위배됨을 정부에 강경하게 요구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



유진상 부장

“공산품을 수출할 때 생기는 수익금을 농민들한테 환원해주는가 세제상 제도적인 지원혜택이 필요합니다.”

가의 자가배합사료생산이 가능하도록 법이 운용되어야겠다는 의견도 있었읍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회의 결과를 하루속히 우리 양계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대회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다고 보며 따라서 제2차 제3차 대회도 가질 수 있다는 계기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김오환:** 이날 대회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프랭카드와 피켓들을 만들어 왔는데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닭고기·계란 수입결사반대, 수입개방을 주장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전경련·무역협회 등은 농민에게 사과할것, 미국 농민 살찌우는 축산물수입 반대, 농

산물수입압력에 따른 반미감정의 표출 등을 볼 수 있었으며 건의문 채택에서는 축산물수입반대, 축산물 생산원자재에 대한 면세조치, 양계산물 유통구조 개선 외에도 대기축 위주의 축협폐지, 농산정책에 상공부 경제기획원등 농림수산부 외의 타부처 역할의 감소 내지는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밖에도 쇠고기 수입의 해결방안으로 무제한 수매한다는 모장관의 대책에 대해 닭·계란의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반대를 명백히 한 바 있습니다.

**유진상:** 내정부건의와는 별도로 양계인의 결의를 통해 전체 양계산업의 발전과 양계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조금제도 채택, 양계규모확대 자체, 유통구조개선에 앞장서기로 하고 위생적인 상품성 높은 양계산물 생산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소비패턴 다양화로 소비촉진과 자조금제도의 성격상 소비촉진기금, 안정기금 등 우리실정에 맞는 제도를 속히 정립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생존을 위해서는 공산품 수출의 이익을 농민의 피해보상기금으로 전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읍니다.

행사장소가 화려해 양계인들은 심리적위축, 수입에 따른 위기의식 긴박감 등으로 분위기는 대체로 무거웠으며 집중력은 강했는데 기폭제가 없어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느꼈읍니다. 그런데 비해 행사 담당자들만 열기가 올라 흥분하여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루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일부의 시위선동의

전은 묵살되었습니다.

**이종태:** 축산인들이 앞으로는 양계인대회, 양돈인대회, 낙농인대회 등으로 자기 우후죽순처럼 따로따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지양해서 공동관심사에 대해서는 하나의 의견 조정과 통합과정을 거쳐 좀더 큰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할 수 있는



이종태 기자

“공동관심사에 대해서는 하나로 의견조정과 통합과정을 거쳐 하나의 큰 목소리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방안을 마련,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어떤 문제해결을 위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설연구기구를 자체 농림수산부내에 설치해두고 생산자들과의 원만한 문제해결로 활발하게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유진상:** 국제경쟁력에 있어서 현재

계란같은 경우 개당 생산비가 미국이 28~30원선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5~38원이라고 알고 있는 바 어찌보면 이와같은 것은 원가절감을 통해서 충분히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국내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합사료 및 원료사료와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등에 대한 관세·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관세당국에서는 축산물에 대한 수입개방을 어쩔 수 없이「작은 것은 주고 큰 것은 얻어내자」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공산품을 수출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농축산인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더불어 축산물을 수입해도 축산인이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고 피해를 보지않는 선에서 구태여 생존권 투쟁을 하지않아도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화시켜서 절대적으로 우리

축산인들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정희:** 결론적으로 그날 대회에서 양계인들이 축산물 수입개방이라는 것을 전제해 두고서 정부에 바라는



전정희 기자

“  
앞으로의 대책도  
양축가들에게 상세하게 알려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적극적인  
지도계몽이 필요합니다.”

것과 또 결의문을 통해서 양계인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동안 어느정도 부정적으로 본 양계인들은 대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고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해요.

이제 양계인대회를 주관했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정부 요구 사항의 관철과 협회나 조합 등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우리의결의 내용에 대한 성실한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끝마무리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업체는 업체대로 노력을 배가해 좋은 결실이 맺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사회:** 추진위원회는 행사 후속조치 사항을 속히 전 양계인들께 알려주어야 하며 정부, 업계, 양계인이 3위1체가 되어 국제화시대의 수입개방압력에 슬기롭게 대처해 국내 양계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계인**

## 사 고

독자 여러분의 성원으로 만들어지는  
월간양계가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 보내실 곳 : 대한양계협회 편집국